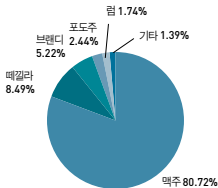




1. 주류산업 현황

가. 최근 주류산업 동향

멕시코의 주류별 소비량은 2004년 기준으로 맥주가 전체의 80.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 전통주인 테킬라 8.49%, 브랜드 5.22%순으로 나타났다. 주종별로 살펴보면 럼주 및 브랜드의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맥주 및 테킬라 소비는 증가 하고 있다.



자료원 : Consultores Internacionales S.C.

그림1 2004년도 주류소비동향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맥주, 와인, 플레이버 알콜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맥주와 플레이버 알콜 음료는 저렴한 가격과 젊은 취향에 맞는 광고 등으로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높다. 증류주는 지난 10년동안 30% 판매가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관련업계에서는 높은 세율 및 밀수품, 불법복제품의 시장유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증류주의 종류별 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위스키 15%, 테킬라 11%, 보드카 7%의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격하락이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2001년부터 NAFTA 체결 국인 미국, 캐나다와 전면적인 주류제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졌으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주류 대부분이 북미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2004년 전체 주류 수출액은 19억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68%가 맥주 수출로 13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테킬라의 수출액은 5억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해 멕시코의 주류수출은 맥주와 테킬라에 집중되어 있다. 멕시코의 주류 수입액은 2004년말 기준으로 3.6억달러 수준으로서 주류 수출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증류주와 포도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4년 주류 수입은 8.6% 증가 하였으며 증류주 16.9%, 포도주 13.3%, 과일 및 곡식발효주가 7.9% 증가 하였다.

한국 주류의 경우, 과일곡물 발효주, 증류주가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증류주(소주)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2004년 수입액이 61,607달러 수준으로 아직까지 멕시코에서는 한국 슈퍼 및 식당에서만 한국 주류가 판매되고 있다.

1) 맥주

멕시코는 세계적인 맥주 생산국가로 맥주 생산이 전체 GD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Modern Brewery Age 2004년 9월 6일자에는 2003년말 기준으로 세계 제 6위 맥주 생산국인 것으로 발표 되었다.

표1 2003년도 세계 맥주 생산 현황

순위	국가명	생산량(백만 b)
1	중국	25.10
2	미국	23.08
3	독일	10.53
4	브라질	8.52
5	러시아	7.57
6	멕시코	6.64

멕시코 맥주시장은 Grupo Modelo와 FEMSA로 양분되어 있다. Grupo Modelo의 생산가능량은 연간 5,200만 헥토리터(hectoliter)이며 Corona Extra, Modelo Especial, Victoria, Pacifico, Negra Modelo 등 10개 상표의 맥주를 생산하여, 15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다. Femsa는 1890년에 설립된 회사로 중남미 최대 음료회사 중 하나이며, CocaCola 음료 및 Tecate, Carta Blanca, Bodemia 등의 맥주를 생산하며, 70개 이상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Grupo Modelo는 2004년말기준 총 4,282만 헥토리터의 맥주를 판매하여 총매출액은 448억페소(39.7억달

레이)였으며 전체 판매량 중 71.4%인 3,059만 헥토리터가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Femsa는 2004년에 2,568만 헥토리터를 판매했으며 그 중 91.3%가 내수판매였으며 총 매출액은 222억페소(19.7억달러)로 나타났다. Femsas는 계열사인 Oxxo 편의점을 통해 다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멕시코의 맥주 소비는 큰 폭의 증가 추세에 있어 연간 25%정도의 소비량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멕시코의 2004년 1일당 맥주소비량이 53리터로 유럽 및 미국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표2 2004년 1인당 맥주 소비량

지역	리터
유럽	100
미국	81
멕시코	53

자료원 : 멕시코 맥주제조업협회

맥주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하여 2004년 8.3% 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연합농업식량기구(FAO)에 따르면, 2003년에 멕시코는 139만톤으로 맥주 수출량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맥주수출 1위 차지하였다.

표3 세계 맥주 수출 동향

(단위: 백만톤)

국가명	2002	2003	증감율(%)
멕시코	1.3	11.39	6.2
네덜란드	1.37	1.30	-5.6
독일	1.01	1.12	10.9
벨기에	0.75	0.68	-9.7
캐나다	0.40	0.39	-1.2
덴마크	0.32	0.35	11.7
아일랜드	0.32	0.32	-2.2
영국	0.38	0.28	-27.9
미국	0.24	0.24	1.0
체코공화국	0.21	0.22	7.0

자료원 : FAO

멕시코 맥주는 하이네켄으로 유명한 최대 경쟁국 네덜란드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맥주의 톤당 가격은 1,168달러인데 반해 멕시코 맥주의 톤당 가격은 873달러로 세계 맥주시장에서 멕시코 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 맥주는 미국 시장은 물론 중남미 시장에서도 영국 리서치 회사 Research International사가 중남미 4개국 젊은이들 대상으로 실시한 “쿨(cool)”한 맥주 브랜드 조사에서, 보헤미안, 코로나 등 멕시코 브랜드들이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는 미국,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이며,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눈에 띄게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Grupo Modelo의 경우 150개국 이상에 4개 브랜드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90%가 미국, 캐나다, 유럽이 6%를 차지하고 있다.

2) 테킬라(Tequila)

테킬라 산업협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멕시코 테킬라 생산량은 1억 7,598만리터로 전년대비 25.5% 증가 하였으며 년도별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표4 년도별 테킬라 생산량

(단위: 100만리터)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생산량	104.3	134.7	156.5	169.8	190.6	181.6	146.6	141.0	140.3	176.0

멕시코 전통주인 테킬라는 아가베 선인장을 원료로 생산되므로, 아가베선인장 수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테킬라는, “원산지 지정” 법안(La Ley dominacion de

origin)으로 인해 Jalisco, Guanajuato, Nayarit, Michoacn, Tamaulipas 지역에서 재배된 아가베 선인장으로 제조된 테킬라만을 정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 지역들의 경우, 화산지역 토양 및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가베 아술(agave azul) 선인장의 재배지이다.

그림2 주요 테킬라 제조 지역



자료원: 전국 테킬라산업협회

*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테킬라 생산지역

테킬라 업체에서는 최근 extra anejo라는 고급 테킬라 종류를 신규 개발 했으며, 동 제품 출시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 del Tequila)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테킬라 조정위원회(Consejo Regulador de Tequila)에 따르면 주요 테킬라 제조업체 Herradura 이외에 10개 회사가 extra añejo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테킬라는 전체 증류주 판매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판매가 증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2000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3 테킬라 일인당 판매 동향 : 1994-2005



국내에서 공식인증을 받은 테킬라 제조회사는 101개사이며 646개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Herradura, Casa Cuervo, Sauza 3개사가 가장 대표적이며, Bacardi, La Madrileña, Viuda de Romero, Don Julio, Tequilera Rustica de Arandas, San Matias, Tequilena S.A., Pueblo Viejo, La Arandina, Torres Perez Hermanos, Orendain, Tequilera Corralejo 등이 있다.

멕시코 테킬라시장은 Herradura가 23%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CASA CUERVO 15%, SAUZA 11%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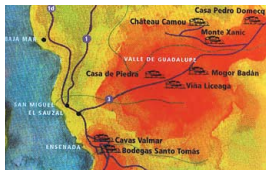
테킬라는 2004년 전체 1.2억리터 생산량 중 62%를 수출하고 있다.

3) 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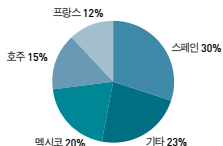
멕시코 와인산업은 2004년에 25%성장을 보였으며, 매년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와인 주요 생산 지역으로 Baja California, Sonora(북부지역), Coahuila, Durango(La Laguna:호수지역), Zacatecas, Aguascalientes, Queretaro(중부지역) 7개 주가 있으며 그중 바자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지역이 가장 대규

모 와인 재배지역이며 멕시코 전체 와인의 80%가 생산되고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업체로는 Domecq, LA Cetto, Monte Xanic 가 있다.

그림4 바자캘리포니아 주요 와인 재배지역



멕시코 와인산업협회에 따르면 2004년 멕시코 일인당 와인 소비량은 연간 250ml에 불과했으나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다.



자료원 : EXPANSION

그림5 원산지별 와인 소비 동향

멕시코에서 와인은 아직까지 2,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중상류층이 주 소비계층이며 연간 평균 5 1/3병을 소비하고 있다. 멕시코인들은 스페인산 와인을 가장 선호하며, 스페인산 외에는 멕시코, 호주, 프랑스산 와인

을 주로 소비하고 있다.

2. 정부의 지원제도 및 규제

멕시코의 경우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주류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제도는 없으나 전통주인 테킬라는 멕시코 대외무역은행(BANCOMEXT) 및 Jaltrade(Jalisco주 무역진흥기관) 등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관에서 중소기업 수출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정부는 테킬라에 표준규격제도(NOM Tequila)를 시행하고 테킬라의 제조, 포장, 유통 과정에 필요한 요건들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산지 보호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Jalisco, Guanajuato, Nayarit, Michoacn, Tamaulipas 지역에서 재배된 agave Tequilana Weber (agave azul의 특정 종) 선인장으로부터 테킬라 술을 제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테킬라는 원산지 및 화학성분 분석을 통해 NOM을 획득할 수 있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한해, 테킬라 조정위원회에서 인증을 받게 된다.

멕시코 정부는 알코올 규제와 관련하여 주류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며 대중매체에서의 주류광고는 저녁 10시 이후에만 방송할 수 있다. 다만 맥주는 알콜 농도가 낮아 예외로 적용하고 시간대에 상관없이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 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218조에 따르면, 모든 알콜음료는 용기에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문구를 라벨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상업 광고시에도 지나친 과음을 피하며 적당량의 음주를 권하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또한 멕시코 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217

조는 에틸알콜 함유량 2%에서 55%를 알콜음료로 규정하고 55%이상은 상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3. 주류 수입관리 제도

주류를 수입·유통하려면 사전에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서 일반 수입면허(padrón general)와 함께 별도로 주류수입 면허(padron sectorial)를 취득해야 한다.

주류수입은 주류의 성분 검사 및 NOM-142-SSAI-1995의 9장(Capitulo 9) 라벨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류용기는 눈에 잘 띄게 제품명, 용량, 원산지, 수입자명 과 주소, 알콜농도, 유효기간, 경고문구, 첨가물등을 스페인어로 표기 하여야한다.

주류 수입면허를 취득한 수입상은 수입필요서류인 인보이스, 팩키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사소 검사 결과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한다.

4. 주류관련 세금

가. 관세

멕시코는 NAFTA 뿐만 아니라 EU,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양허관세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한국과 같이 비FTA 체결국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등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5 멕시코 주요 경제지역간 관세율표

HS 코드별	품목명세	NAFTA	EU	일본	한국(비FTA국가)
2203	맥주				
	0001 - 맥주	0%	0%	0%	20%
2204	포도주				
	1001 발포성포도주	0%	9.0/6.8%	0%	20%
2104	삼패인, 탄산가스를 포함한 기타 와인	0%	9.0/6.8%	0%	20%
	3099 기타	0%	20%	25%	20%
2205	베르뫼트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				
	1001 -베르뫼트	0%	9.0/6.8%	0%	20%
9001	-기타	0%	9.0/6.8%	27.2%	20%
2206	기타의 발효음료				
	0001 -레오네이드, 맥주, 와인과 혼합된 음료 또는 와인과 맥주가 혼합된 음료(와인클러)	0%	12.4%	20%	20%
	0099 -기타	0%	6.8%	20%	20%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				
	1001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순도 80% 이상	0%	0%	0%	10%+ 1리터당 0.39586 페스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농도80% 미만의 것), 증류주, 기타 주정음료				
	2001 - 코냑	0%	0%	0%	20%
	2002 - 브랜디 또는 "Wainbrand"	0%	9.0/6.8%	0%	20%
	2003 - 섭시 15도에서 알콜 농도가 80도 이상인 포도주 증류주	0%	4.5/3.4%	0%	10%
	3001 - 캐나다 위스키	0%	0%	0%	20%
	3002 - 섭시 15도에서 알콜 농도가 53도 이상인 위스키	0%	0%	0%	10%
	3003 - 알콜 농도가 40도 이상인 위스키로 최소 3년간 700리터 용량이하의 나무 용기에 숙성된 위스키	0%	0%	0%	20%
	3004 - "Tennessee" 위스키, Bourbon 위스키	0%	0%	0%	20%
	4001 - 럼주	0%		0%	20%
	5001 - 진 및 제네바	0%	0%	0%	20%
	6001 - 보드카	0%	9.0/6.8%	0%	20%
	7001 - 섭시 15도에서 알콜농도 14도에서 23도이하의 용기에 담긴 것	0%	0%	0%	20%
	9003 - 테킬라(Tequila)	0%	0%	20%	20%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나. 내국세

특별 생산에 대한 특별세(La Ley del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Especial: IEPS)에 의거하여 알콜음료 및 맥주를 판매 또는 수입 할때는 알콜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표6 특별세 세율 현황 (2004.12.1일 시행 신규 세율)

상품내역	세율
알콜 농도 14% 미만의 것	25%
알콜 농도 14~20%	30%
알콜 농도 20% 이상	50%
알콜, 변성 알콜, 결정(結晶)되지 않은 꿀	50%

특히 멕시코에서는 2006년부터 맥주에 환경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현재 25%인 특별세(IEPS)외에 재활용가능 용기에 담긴 맥주는 리터당 1.26페소, 재활용이 불가능한 용기에 담긴 맥주는 리터당 3페소씩 환경세를 부과한다.

5. 연료용 알코올 현황

가. 기술개발 동향

멕시코에는 아직 특별한 연료용 알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 연료 가격 상승 속에서 사탕수수 및 옥수수를 활용한 에탄올 연료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경제부, 농업수산부가 주요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사탕수수 업계 다변화를 위해 사탕수수를 이용한 대체연료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에서 바이오 디젤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 중인데 특히 미국근교 멕시코 북동부에 위치한 누에보 레온주의 주도 몬테레이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몬테레이

Grupo Energeticos사는 Tec de Monterrey 대학과 공동 연구 끝에 소가리, 메탄올, 식물성 미네랄을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였다. Grupo Energeticos에서 150만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공장은 멕시코 최초의 바이오 디젤 생산공장이며, 첫 단계로 월 30~50만리터를 생산할 계획이고, 이 생산제품은 우선 몬테레이 지역 디젤 공급업체 차량 80대용으로 사용될 예정에 있다. 바이오 디젤은 동,식물성 기름을 알코올과 반응시켜 나오는 물질로 기존 디젤과 특성이 거의 같고 연소시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선진국형 청정 대체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멕시코 에너지부에서는 지난 2002년에 바이오 디젤이 일반 디젤 및 가솔린과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아무런 법적인 제약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중남미지역에서는 브라질이 바이오 디젤 이용 및 연료용 알콜인 에탄올생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바이오 디젤 생산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체 연료 수출국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는 그동안 대체 연료 개발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멕시코 원유가 향후 25~30년 후에 고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멕시코 정부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노력을 가속시키고 있다.

나. 연료용 알코올 시장의 향후 전망

2005년 10월 3일 중국기업이 멕시코 게레로주 아카풀코 지역에 1,200만달러를 투자해 대체연료인 에탄올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멕시코는 세계적인 사탕수수 및 옥수수 생산 국가이므로, 향후 동 농산물을 활용한 연료용 알콜 생산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